

# ‘지지부진’ 군 공항 이전 해법 나올까?

광주시-전남도 오늘 2차 상생발전위원회 개최  
무안군, 정해진 절차 거부… 전남도 ‘나몰라라’

광주시와 전남도가 상생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댈 예정인 가운데 지역 최대 현안인 광주 군 공항 이전 갈등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25일 오전 11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민선7기 2차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를 개최한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시·도 지문위원, 실무위원 등 40여명이 참석한다.

지난해 8월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광주 민간 공항 무안공항 통합과 광주 군 공항 이전, 광주전남 혁신도시 공동발전 기금 조성 등 기존 추진 중인 24개 과제를 논의한다.

전남도가 제안한 공공기관 이전 시즌2 공동대응 방안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4세대 원형 방사광기술 구축, 내년 개최 예정인 수목비엔날레와 광주비엔날레의 공동 협력 등 10개 이내의 신규 과제도 선정한다.

이번 상생발전위의 최대 관심사는 시와 도, 무안군 사이에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다.

지난해 1차 상생발전위에서 이 시장과 김 지사는 광주 민간 공항? 무안국제공항 통합과 광주 군 공항 이전 협력, 한전공대 설립 등 9가지를 신규 협력과제로 선정했다.

이 시장은 대승적 차원에서 조

건 없이 광주공항을 이전키로 했고, 김 지사는 광주 민간 공항이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면 군 공항도 전남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공감했다.

김 지사는 또 군 공항 이전 대상 자체와 국방부, 광주시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이전 지역 주민들이 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군 공항이 조기에 이전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1차 상생발전위 이후 1년이 지나도록 민간 공항 이전 논의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군 공항 이전 문제는 ‘제자리 걸음’이다.

무안군은 이전반대 범군민대책위를 만들어 반발하고 무안군의회도 이전반대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이전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시는 2017년 용역을 거쳐 전남 무안, 해남, 신안, 영암 등 4개 지역의 6곳을 광주 군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압축하고 국방부에 선정을 요청했다.

국방부는 절차에 따라 예비 이전 후보지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최종 후보지를 선정, 발표하기로 했다. 하지만 무안군이 주민설명회조차 거부하면서 답보 상태다.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국가 사업이다. 무안, 해남, 신안, 영암 등 4개 지역 예비 이전 후보지 중



어디가 선정될지는 알 수 없다.

설명회 등을 거쳐 국방부가 후보지를 선정하더라도 주민 투표 등을 통해 결정하고 무안군수가 결정권이 지자체에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무안군은 정해진 절차마저 거부하고 전남도는 ‘나몰라라’ 방관하면서 ‘상생 발전’이라는 구호를 퇴색시키고 있다.

앞서 이 시장과 김 지사는 지난 11일 광주 서구 모 식당에서 비공개로 만났다.

배석자 없이 2시간 가량 진행된 비공개 회담은 회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허심탄회하게 대화가 오갔고 군 공항 문제는 ‘실무협의안’을 통해 해결책을 찾자고 했다.

김 지사는 “허심탄회하게 만나 의견을 교환하고 분위기가 참 좋았다. 상생과제는 실무협의안대로 잘 처리해 가고 앞으로 자주 만나자는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광주와 전남이 큰 간극이 있는 것처럼, 관계에 이상이 있는 것처럼 비치는데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자주 만나 협안을 논의하자고 했다”며 “군 공항 문

제는 어떤 방향으로 시·도민들에게 희망을 줄 지 실무자간 논의를 통해 검토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지지부진한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선 ‘실무자간 논의’, ‘실무협의안’이 어떻게 조율되는지에 달린 셈이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종합하면 실무협의안은 어려운 게 아니다.

국가 사업인 ‘군 공항 이전’ 문제는 절차상 국방부가 무안, 해남, 신안, 영암 등 4개 예비 이전 후보지의 주민들에게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한 ‘설명’을 해야 하는데, 설명회 기회마저 차단하면서 답보상태다.

군 공항 이전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주민들의 몫이다. 지자체는 주민들이 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국방부가 설명할 자리만 마련하면 된다.

이에 따라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광주전남상생발전위에서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한 ‘주민설명회’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신봉우 기자

## 동구, 자율방재단 대상 역량강화 워크숍

광주 동구가 22일 동구청 지하1층 민방위교육장에서 지역의 각종 재난·재해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동구지역 자율방재단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구는 현재 13개 동 220여 단원이 자율방재단으로 활동 중이다.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현장을 지원하고 주민대피유도, 긴급구호물자 조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평상시에는 교육·훈련 등을 꾸준히 실시해 위기대응능력을 높이고 예찰활동 등을 펼친다.

임택 동구청장을 비롯해 자율방재단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워크숍은 기상재해·지진 대처교육, 재난대비 응급처치 교육 등을 실시했다.

## 서구, 주민자치 결산 위한 어울림 한마당 개최

광주 서구는 21일 서구청 1층 로비 및 2층 대회의실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자치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금년 한 해 동안 주민 스스로 참여해 온 주민자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고민해보는 결산 및 공유·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주민자치 이상(理想)이 일상(日常)이 되다!!’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각 동 주민자치위원 및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

## 남구, 겨울철 관내 주택건설 7곳 현장 점검

광주 남구는 겨울철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동절기 주택건설 사업장 점검’을 실시한다.

21일 남구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관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아파트 건설 현장 등 대형 주택건설 사업장 7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건설 사업장 내 절개지와 옹벽 등 취약 부분에 대한 관리를 비롯해 품질 관리의 적정 여부, 시공 및 자재품질 관리 등 공사 감리업무 수행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 북구,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성과를 한자리에

광주 북구가 지역 내 미래유망한 중소기업의 우수성을 알리는 자리로 마련한다.

북구는 “25일부터 내달 6일까지 북구청 1층 갤러리에서 2019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성과전시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성과전시회는 북구가 지난 1년간 지원해 온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성과물을 한자리에 모아 선보임으로써 우수제품 홍보 및 판로개척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참여기업은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대상인 스브랜드 디자인 개발 분야(8개사) △우수기술 시제품 제작 분야(9개사) △지식재산 권리화 분야(10개사) 등 3개 분야 총 27개 수혜기업이며 흡연부스 디자인, 신발용 제습제, 조명기능 멀티탭, 게이밍 마이크 등 다양한 제품을 전시한다.

## 광산구, 1913송정역시장 주차타워 준공

21일 광주 광산구가 광주송정역 건너편 1913송정역시장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1913송정역시장 주차타워’를 준공하고, 25일부터 시민에게 주차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국·시비 등 38억원으로 기존 28주차면 주차장에 건립된 이 주차타워는, 연면적 3,382㎡의 3층 4단 규모로 차 107대를 수용할 수 있고, 승강기와 전기차충전기 충전설비 등을 갖추고 있다.

광산구는 주차타워를 통해 연말까지 무료 개방하고, 내년 1월부터 유료로 전환할 예정이다.

임택택 기자

## 전남도, 농업환경보전사업 4곳 선정…6억5천만원 지원

순천 궁각·담양 청촌·강진 안풍·장성 생촌마을

전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2020년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에 전국 20개소 중 4개소가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은 토양·수질환경 개선 등 농업생산 환경보전 활동과 경관 개선, 자연·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활동 등에 주민활동비를 지원하는 방식

으로 추진된다.

올해까지 2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부터 본 사업으로 반영됐다.

전남지역 선정 마을은 순천 궁각, 담양 청촌, 강진 안풍, 장성 생촌마을이다. 이를 지역은 앞으로 5년간 최대 6억5000만원을 지원받아 농업환경 보전 관련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농업환경 보전사업 추진 1차년에는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컨설팅, 주민·행정·전문가 간 현장 거버넌스 체계 구축, 농업환경 조사·진단 및 연차별 사업 시행계획 수립 등을 진행한다.

2~5년차에는 1년차에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비료 투입 저감, 농업용수 수질 개선 활동 등 농업환경 보전활동, 미들의 농업·문화유산 보존, 농업환경 모니터링 등을 실시한다.

지난 2018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함평 백년마을의 경우 농업환경보전 활동과 연계한 친환경 농업 육성으로 사업 시작 전인 2017년 친환경 인증 면적 16.8ha였으나, 올해 45ha로 무려 2.6배나 늘었다.

또한 앞으로는 유기농생태마을과 연계 육성할 계획이다.

유동찬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지속적인 토양·농업용수 개선활동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공의적 기능을 높이고, 농촌 경관·문화유산 등의 보존활동을 통해 삶의 질이 높아지는 농업·농촌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허성 기자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광고 직통 ☎ 062)224-5800  
팩 스 222-5547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 우 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 한정승인공고

사건 번호: 광주기정법원 해남지원 2019느단 201 상속한정승인  
사망자: 이연열(370328-2665616)  
최후주소: 전남 진도군 군내면 군내신동길 33-14(둔전리)

위 망 이연열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 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 제 1032조(재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19년 11월 25일

공고인: 조동식, 조홍식, 조영삼, 조구현, 조길운  
주 소: 전남 진도군 군내면 군내신동길 33-14(둔전리)  
한정승인수리일: 2019년 11월 14일  
공고기간: 2019.11.25 ~ 2020.1.25

## 한정승인공고

사건 번호: 광주기정법원 순천지원 2019느단 817 상속한정승인  
사망자: 이웅철(671003-1011123)  
최후주소: 전남 보성군 보성읍 쌍룡길 92

위 망 이웅철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 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 제 1032조(재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19년 11월 25일

공고인: 이정숙  
주 소: 전남 보성군 보성읍 쌍룡길 92  
한정승인수리일: 2019년 11월 14일  
공고기간: 2019.11.25 ~ 2020.1.25

## 한정승인공고

사건 번호: 광주기정법원 순천지원 2019느단 841 상속포기 및 상속한정승인  
사망자: 이옥순(351215-2581217)  
최후주소: 순천시 석현길 70, 106동 104호(석현동, 향립현대아파트)  
등록기준지: 전남 순천시 동외동 85번지

위 망 이옥순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 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 제 1032조(재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19년 11월 25일

공고인: 김현근  
주 소: 순천시 석현길 70, 106동 104호(석현동, 향립현대아파트)  
한정승인수리일: 2019년 11월 14일  
공고기간: 2019.11.25 ~ 2020.1.25